

고려 무신집권기 호위제도의 경호학적 고찰

이성진* · 조성진**

〈요 약〉

고려전기의 궁중호위는 2군6위의 중앙 정규군으로 편성되어 궁궐안의 호위는 내순검군이 담당하였으나, 무신집권기에 이르러 군제는 문란해지고 왕실 호위는 무신들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무신들은 왕의 자척에 있는 중방을 중심으로 문신들을 억압하고 왕권을 무력화시킨 후 국정을 좌지우지하였다. 무신의 3거두였던 정중부, 이익민, 이고 등의 집권이 단명으로 끝나고 경대승이 집권자의 지위에 올랐을 때, 그는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백 수십인의 결사대를 문하에 두었는데, 이 조직이 도방(都房)이었다. 경대승이 병사함에 따라 도방이 폐지되고, 최충헌 집권시대에 신변보호와 집권체제 강화를 위해 경대승의 도방을 부활시켜 보완한 6번(番)도방은 규모가 방대하고 더욱더 체계를 잘 갖추었다.

최충헌의 아들 최우의 집권기에 6번 도방은 내외도방(內外都房)으로 확장, 강화되었으며, 손자 최항의 집권기에는 한층 더 발전하여 도방 36번제도가 확립되었다. 초기의 도방은 무신 중심으로 도방 주인의 신변안전을 목표로 하였지만 후기에는 문신이 참여함으로써 정보 수집과 선발 경호의 활동을 하였고, 내도방에 해당되는 기병은 사후 위험 방지 역할까지 함으로써 개인의 호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가문을 지키고 나아가 사회질서와 왕실과 조정을 장악하고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포괄적인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최 씨 정권은 사적 친위조직으로서 도방 이외에 마별초(馬別抄)를 창설하였는데, 이는 도방과 함께 기병과 보병(步兵)의 양쪽 날개를 이루었다. 삼별초는 고종 때 최우가 조직한 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로 나누어지고, 여기에 신의군이 합해져 만들어진 것이다. 삼별초가 조직된 이후에는 별초군이 군사와 경찰, 형욱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무신집권기의 호위 조직이었던 도방과 별초군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설경호기구로 출발하였으나 차츰 왕실 호위 기구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왕실이 도방의 보호를 받는 경지에 이르렀다. 사설경호경비에 해당되는 현대의 민간경호경비는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성이지만 공적경호경비와 마찬가지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 호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제1저자)

** 국민대학교 박사과정(교신저자)

무신 집권시기의 가병이나 도방 구성원들의 역할과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신집권기의 경호조직은 처음에 개인의 신변 호위를 담당한 도방으로 출발하여 무신들의 참여와 확장으로 공공성을 띠어가게 되었고, 삼별초(三別抄)의 활약에 이르러서는 왕실 호위기구가 담당했던 역할에 근접하는 국가 사회 치안구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주제어 : 호위제도(護衛制度), 도방(都房), 마별초(馬別抄), 삼별초(三別抄), 민간경호

목 차

- | |
|--|
| I. 서 론
II. 무신집권기의 호위제도의 변천
III. 연구 문제의 분석과 논의
IV. 결 론 |
|--|

I. 서 론

1. 연구사 및 연구의 필요성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여 세운 고려는 초기에 고대국가로서의 각종 제도를 확립하면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중기에 들어와 귀족사회를 중심으로 권력의 암투가 드러나면서 혼란의 미궁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소위 개경과와 서경과의 대립이 그 대표적 사례가 된다. 외면상으로는 평화로운 시대에도 항상 왕권에 대한 도전은 군사적 권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신을 우대하고 무신들의 세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숙종이 건룡군(牽龍軍)을 창설하여 근접경호를 강화한 시대배경도 이해할 수 있다. 2군6위의 중앙군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수임무를 띤 건룡군의 창설은 시대적 요청이었을 것이다.

무신쿠데타가 일어나기 전 고려 중기의 상황은 오늘날의 테러를 염려하는 상황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경호경비의 필요성은 전시에서보다 평화시에 더욱 요청되는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한 일일 것이다. 오늘날 무신집권시대의 경호경비제도를 연구하는 것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 것이다. 나아가 고려 무신집권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그 시대의 경호제도에 관한 연구 또한 비교적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경호제도사 연구에 있어서 진단학회한국사(1978),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2003), 이기백의 한국사신문(2007) 등의 일반 역사서에서는 호위제도를 별도로 논하지는 않았지만

무신쿠테타의 상황과 호위제도사 연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다.

진단학회한국사(1978)에서는 무신들의 중방정치, 무신상호간의 상극, 3거두 즉 정중부·이의방·이고의 권력투쟁, 경대승의 집권기에 도방의 창설, 최충헌 집권기의 6번 도방, 최우 집권기의 내외도방, 그 외에 가병, 마별초, 야별초, 삼별초 등의 호위기관과 역할에 관해 기술하여 경호경비 제도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2003)의 한국사에서는 이러한 호위제도의 변천과 역할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논의되었으며 이기백(2007)의 한국사신문에서는 최 씨 정권말기의 삼별초의 역할을 공식 경호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무신집권기의 호위제도가 가치 있는 제도임을 시사하고 있다.

고려 무신집권기의 경호제도사가 언급된 저서와 연구논문으로서는 민병하(1973), 김두현(2005), 박장규(2010), 전태인(2005), 이민형(2007), 이성진(2007), 이관배(1988), 전경숙(1997), 이경혜(2001), 경규만(2004), 송병문, 민재기(2006), 김창호 외 5인(2008), 곽윤기(2010), 김우준(2012) 등 비교적 풍성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들 연구의 주제와 논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민병하(1973)는 무신집권 초기의 중방(重房)의 역할에 관하여 무신쿠테타 직후 무신들의 전권을 휘두르는 대표적인 기구였으나 최 씨 정권 이후 무력화된 상황, 그리고 교정도감(交正度監)이 최 씨 정권 권력 행사의 중요한 직책이었음을 주장하였다.

김두현(2005)은 일반 역사서로부터 경호사를 추출, 분리, 독립시켜 현대 경호학의 입장에서 호위제도사를 밝혔다(경호학개론, 1995). 그는 고려 무신집권시의 경호기관을 도방과 내도방이라고 전제로 하고, 경대승의 도방-최충헌의 6번 도방-최우의 내외도방으로 확장과정을 밝히면서 서방, 별초군의 발생과 역할에 관해 서술하여 경호학의 큰 체계 안에서 무신집권기의 호위기관에 대하여 논하였다.

박장규(2010)는 한국 경호사에서 고려 무신란 전후의 경호제도와 관련지어 무신집권시대의 경호에 대하여 경호사의 범주 내에서 도방 외에 서방, 마별초, 삼별초에 대한 시대적 의의를 언급하고 있다.

전태인(2005)은 고려시대 무예활동을 통한 친위조직 연구에서 무예의 체제 안에서 무신집권기의 경호를 사경호로 규정하고, 경대승과 최 씨 정권의 도방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는 최충헌의 도방창설과 재건에 대하여 규모만 달라졌을 뿐 동질의 활동으로 보고 사적 경호로 간주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에서 발견된다.

이민형(2007)은 고려 무신집권기 경호조직에 관한 연구에서 무신집권 당시 무신들의 호위조직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적 경호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인을 위한 민간경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고려시대 호위조직의 무예활동은 본질적으로 국왕 및 집권자의 안위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무예 실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이성진(2007)은 고려시대 왕실호위제도의 사적 고찰에서 고려의 성립과 군사제도의 확립, 그리고 무신시대와 고려의 후기 호위제도 및 그 의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논하였다. 한 시대의 제도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후 역사적 맥락에 의하여 형성되어 후대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경호의 범위를 단순히 호위만이 아닌 그 환경과 배경, 상황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관배(1988)는 고려 무신집권기의 사병조직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전경숙(1997)은 고려 최 씨 집권기의 도방에 관하여, 그리고 이경혜(2001)는 고려 최 씨 무인정권기의 도방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경규만(2004)은 경대승의 집권과 그 성격을 밝혔으며, 송병문, 민재기(2006)는 고려시대 경호제도에 관하여 사적인 고찰을 하였다.

김창호 외 5인(2008)은 고려시대 왕실경호제도와 무신들의 경호조직을 비교하는 이론적 고찰을 함으로써 연구의 기초단계를 보여주었으며, 곽윤길(2010)은 고려 무신정권시기 호위조직에 대하여 연구하여 공경호와 민간경호의 이론적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또 김우준(2012)은 고려시대 민간경비제도에 대하여 고찰하여 무신집권기의 사경비의 상황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내용들을 살펴볼 때, 2000년대 이후, 고려시대 무신집권기의 호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 결과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라 여긴다. 그 주요 쟁점은 호위제도의 실제적 경호기구인 도방, 내도방의 확장과 경호경비학적 성격, 그리고 가병, 별초군의 설립과 역할에 관한 것들이다. 몇몇 논문에서는 이 시대의 호위기구가 최 씨 집안의 안위를 지키는 사설 경호의 성격이 두드러진 특성을 지녔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발상이 부분적으로 발견되나 무신집권기의 호위제도와 현대 경호경비학과 의 전통계승에 관한 언급이 미비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고려 무신집권기 호위제도의 경호학적 고찰]이라는 제목 아래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서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가설 설정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주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관련 문헌과 논문을 참고하고, 현대경호경비의 이론을 도입하여 호위제도가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 및 그 성격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려 보고자 하였다. 고려 무신집권시의 호위제도의 중심 기구가 도방이며 이를 중심으로 한 최 씨 정권의 사설경호경비가 오늘날의 경호경비의 시초를 이루었다는 역사적 의의를 발견하는 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고 일반 사서를 통한 역사적 환경과 몽고의 침입 등 대외관계에 대한 영향역도 고찰해 보려고 한다. 그 시대의 호위 조직은 직접, 간접으로 국왕의 근접 호위뿐만 아니라 오늘날 경비의 성격을 지녔던 궁성수비 등의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호위와 호종을 포함하는 경호경비의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호위 대상을 당시에 상징적인 존재였던 국왕은 물론 실질적 집권자, 즉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최충현, 최우와 최충현의 4대손 이후 김준, 임연 부자에 이르기까지 집권자들의 사병을 포함하여 이를 내관, 중방, 도방, 서방, 가병, 별초군 등의 발생 경위 및 성격, 기능과 역할, 후세의 평가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호대상자의 범위를 국왕과 왕실에서 집권자와 그의 가계로 넓힌다면 여기에 국위의 안전, 국가의 질서 확립, 재산과 양민의 보호까지 포함하는 오늘날의 경호와 같은 작용이었음을 생각해 볼수 있겠다. 이러한 가설의 결론으로 예상해 본다면 무신집권기의 호위제도는 현대 경호경비제도에 근접하는 제도적 확장과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호경비학의 뿌리를 찾아 이를 계승한다는 입장에서 미래의 경호경비학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믿는다.

II. 무신집권기 호위제도의 변천

1. 고려초기의 국왕호위와 경대승의 도방

고려는 왕건에 의하여 후삼국을 통일한 굳건한 상무정신을 바탕으로 출발하였으나 신라와 태봉국의 제도를 따르던 과도기를 벗어나 고려국가의 체제를 갖춘 것은 제6대 성종에서 제8대 현종에 이르러서이다. 군부의 개편에 있어서는 제4대 광종에

이르러 국초의 순군부를 군부로 개칭하여 중앙 귀족을 통제하는 데에 머물렀고, 성종 때에 병제개혁을 통하여 지방의 군사세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성종~목종에 걸쳐 재편성된 중앙 정규군 2군6위는 왕의 친위대가 되었다. 관료제도 개혁과 함께 문무의 산계(散階)를 나누는 행정과 제반 제도가 정비되어 제7대 성종에 이르러 문과 무 양방으로 고대국가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군사기구를 정비함에 있어 6부의 하나인 병부가 2군 6위의 조직으로 개편되어 군정을 장악함으로써 지방은 주현군이 치안을 맡았고, 북쪽의 동서 양계에는 병마사를 두어 관장하였다(진단학회, 1978).

고려가 문무제도를 갖추고 전제국가의 체제가 완비되어 왕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전성기에는 국가, 개인은 물론 왕권보호의 차원에서도 강력한 호위수단의 확보가 필요하였다. 특히 국왕자신이 생명에 대한 위협을 더욱 심각하게 자각하고, 새로운 왕권의 창출 또는 적대 세력에 의한 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하여 강력한 경호, 즉 호위조직을 만드는 등 신변보호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심이 떠난 왕의 호종 임무를 맡은 장군의 눈짓 하나로 무신들이 단결하여 호응한 반란에서는 왕의 권위는 물론이고 개인적 원한이 없었던 문신들이 집단으로 살해되고 그들이 지녔던 권한은 무신들에게 옮겨가는 혼란이 야기되었다. 귀족문신들의 사치와 방탕이 극에 달했던 1170년(의종 24년)이 바로 그해였다. 이때는 고려의 전성기가 막을 내리고 무신을 차별하는 문신에 대한 불만과 아울러 사회적 기풍이 극히 해이해졌던 시대이다. 국왕을 호위하던 정중부, 이의방, 이고 등이 방만한 문인을 숙청하려는 거사가 하급 군인들의 불만과 맞닿아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만의 확산이 앞장선 3인의 힘이 되어 의종을 폐하고 명종을 옹립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정권은 문신에서 무신으로 넘어가게 되었다(이기백, 2007). 여기서 우리는 호위제도가 완벽하게 정비되고 이를 실현한다 해도 이반된 민심과 계층 간의 상극이 지속된다면 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다.

경대승의 쿠데타는 견룡군에 소속된 하급장교 허승과 김광립, 준익 등이 있었다. 친위군 출신의 26세 장군인 경대승이 군인의 길로 들어선 것은 1168년(의종 2년), 그의 나이 15세 때였다. 이때 그는 음보로 교위(정9품)에 임명되었다. 1178년 3월에 일어난 청주변란은 경대승의 신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정중부는 1179년(명종 9년)에 경대승에게 살해되었으므로 무인들 사이에는 무인의 지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정중부를 찬양하고 경대승에게 적의를 품게 되었다. 이에 경대승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사대 백 수십 명을 도방에 머물게 하였다(이민형, 2008).

도방(都房)의 창설은, 경대승이 사병집단을 조직하고 그것을 도방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으며, 무신집권자 중에서 경대승이 처음이었다. 여기서 도방(都房), 혹은 도방(盜房)은 1180년(명종 10년) 정월 개경일대에 도적떼가 어지럽게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도방의 무사를 자칭했다. 관청에서 체포하여 가두면 경대승은 풀어주고, 풀려난 이들은 다시 약탈을 감행하였다. 1181년(명종 11년) 3월에는 도적의 무리가 국가의 창고인 대창에도 난입했다. 경대승이 다수의 도방무사들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기반이 확보되지 못하여 이들에 의해 도적행위나 불법이 횡행했던 것이다(이승한, 2003). 경대승의 도방은 그렇게 존속되었고, 인간적인 유대관계는 돈독했을지라도 경제적, 호위제도적인 면에서는 안정적이지 못했다.

경대승의 도방의 역할은 당시에 그를 위협하던 적대세력으로부터 보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도방으로부터 어떤 정령(政令)이 나갔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의 사적인 기반으로 경대승 한 개인에게 소속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은 뒤 도방이 그를 장사지내 주었고 그 후 도방에 소속된 자들이 난을 모의할까 두려워 먼 성에 유배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로 인해 도방은 1182년(명종, 13년) 경대승의 병사와 동시에 철저한 탄압을 받고 해체되었다(전태인, 2005).

도방의 주인인 경대승은 이러한 조직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으며, 소속 군사들과 동고동락하는 성의를 보였다던가, 양가(良家)의 자식을 노상에서 살해한 문객을 당국에서 잡아 다스리려 하자 힘써 풀려나게 해 주었다는 사실도 있었다 한다(전경숙, 1997). 그만큼 경대승은 의리와 용맹의 장군이었으나,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이를 위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최 씨 정권의 도방(都房)과 그 확장

경대승의 병사 후 명종은 이의민을 재기용하였다. 명종은 자신의 권력을 지켜줄 유능한 장군을 찾았으나, 당시에 정치가 혼탁하고 집권자 이의민은 탐욕을 자행했다. 무신 쿠데타로 인한 잦은 정권의 교체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고, 이러한 혼란 속에 최충현(崔忠獻)이 등장하여, 아우 최충수와 함께 이의민을 제거하고, 그 외 모든 적대 세력을 제압하여 독재정권을 세우게 되었다. 그는 국왕의 권력을 무력화시켰으며, 사원 세력을 억압하고 농민과 노비들의 봉기를 진압함으로써 이후 그의 아

들 최우에 의해 무인정권이 수립되었다. 최충현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지와 정략을 지닌 장군이였다(이성진, 김의영, 이종환, 2007).

최충현과 최 씨 부자의 권력을 유지시켜 주는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물리적인 군사력으로서, 도방이라는 사병집단에서 비롯되었다. 이미 최충현 집권시에 도방에 소속된 사병은 3000명에 달했다. 여기서 먼저 도방이라는 명칭의 유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충현이 자신의 사병집단에 경대승이 만든 도방을 모방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방의 도(都)는 ‘모인다’, ‘모두’의 의미가 담겨 있고, 또는 ‘거느리다’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방(房)은 ‘집’, 곧 건물이나 장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도방은 ‘모두 모이는 곳’ 혹은 ‘지휘부나 통제소’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도방은 모든 군사들이 모이는 곳 혹은 모든 군인들의 지휘부 정도로 해석한다(이승한, 2003).

최충현 정권의 중심기관은 교정도감(敎定都監)이라는 막부였다. 교정도감은 1202년(신종, 5년)에 최 씨의 사제에 설치되었다. 최충현은 교정도감을 통하여 인사문제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인사·재정·감찰권을 지닌 이 기구의 별감이 되어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형식상으로는 왕권을 유지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왕은 허수아비와 다름없었다.

최충현은 집권 이후에 많은 정적을 물리치고 국왕의 폐립을 자행함으로써 주위에 적을 많이 두었고, 또한 자기 자신도 그 횡포를 잘 알고 있었기에 불의의 변을 당할까 두려워하였다. 그에 따라 최충현은 독재 권력을 뒷받침하는 무력기반으로서 자신의 신변 호위와 집권체제 강화를 위해 이전에 경대승이 설치했다가 폐지된 도방을 부활시켰다. 고려사에 따르면, 최충현이 스스로 방자함을 알고서 그 변고(變故)가 뜻밖에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도방을 설치했다고 하였으니, 단순히 신변보호 목적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모든 분위기를 파악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군사조직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자가(自家)에 도방을 설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대승의 도방은 하나의 선례가 되었으며, 그 도방의 유용한 점들은 취하고 폐단은 시정하여 규모가 확대되고 보다 체계화된 자신의 도방을 조직하였다. 게다가 또 다른 군사 조직도 아울러 참고하였다고 추측되는데, 금군(禁軍)이 이와 관련이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장규(2010)는 최충현의 도방 부활과 재건에 대하여 규모만 달라졌을 뿐 동질의 활동으로 보고 사경호로 처리하였으나 이론의 여지를 남겨놓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충헌이 기존 문객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문무관, 한량, 군졸 가운데 막강한 유력자(有力者)를 초치(招致)하여 도방을 조직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금군을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금군의 일부를 도방에 초치함으로써 금군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반대로 이들을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도방의 조직 이후 금군은 그 이전에 비해 정치적으로 무력화되었으며, 도방이 금군보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김당택, 1987). 이렇게 하여 최충헌은 도방을 통해서 숙위와 호위 즉 신변보호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 시키려 했던 것이다(이경혜, 2001).

도방이 조직된 것은 바로 이 무렵인 1200년(신종 3년)이다. 최충헌은 자신의 문객집단에 대해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양적인 확대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 방법은 국가 상비군을 자신의 문객집단으로 더 많이 끌어들이고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다. 즉 국가 상비군 안에서 문객집단의 외곽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다. 1206년(희종, 2년) 3월의 문객수는 무려 3000여명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다. 이 3000명의 문객집단이 바로 도방의 구성원이나 전체수를 3000여명으로 계산하면 매일 500명의 문객들이 번갈아가며 최충헌의 사저를 지킨 셈이다. 도방의 구성을 6번(六番)으로 나누는 것을 최충헌의 사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인원과 경비를 가늠하여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인원이 500명이었기에 전체 3000명을 6개조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최충헌이 외출할 경우에는 모두 호위하도록 했는데 그 위상은 마치 전투에 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렇게 6번으로 조직된 문객집단이나 혹은 그 지휘부를 도방이라고 한 것이다(이승한, 2003). 곧 최충헌은 도방으로써 국가 상비군을 완벽하게 장악, 통제할 수 있었다.

최충헌은 문무관·한량·군졸을 막론하고 체력이 강한 사람을 불러들여 6번(番)으로 나누어 매일 교대로 그의 집을 수직(守直)하게 하였고, 언급한 바와 같이 출입 시에는 6개의 조직이 연합으로 호위하여 그 위세를 떨쳤는데, 그래서 최충헌의 도방을 6番 도방이라고 하였다. 최충헌의 6번 도방은 그의 아들 최우 때에 한층 더 강화되었다. 최우는 집권하기 이전부터 수많은 사병을 거느리고 있다가 집권 이후에는 6번 도방을 내외도방(内外都房)으로 확장, 개편하였다. 내외도방의 편성에 있어서 내도방은 최우가 거느렸던 사병으로 조직하여 그의 저택의 호위를 맡게 하고, 외도방은 부(父)의 도방을 계승하여 조직한 것으로 그의 친척과 기타 외부의 호위를 맡게 한 것으

로 추측되며, 또 내외도방을 각각 6번으로 편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전태인, 2005).

이 36번 도방은 최항의 아들 최의에 의해 계승되었으나, 불과 집권 2년 만이었던 1258년(고종 45년)에 살해되어 최 씨 정권이 몰락함으로써 도방의 병력이 왕권 밑에 흡수되는 듯하였으나, 그 후 집권자인 김준·임연 등에 의해 다시 계승되어 신변호위의 기능을 다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제거되면서 정중부 이래의 무인정권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서방(書房)은 1227년(고종, 14년)에 최우가 신설한 문인 숙위(宿衛)기관으로, 도방 및 삼별초와 운명을 함께 하였다. 서방이 설치됨에 따라 최우의 문객수가 많아, 3번으로 나누어 번갈아 도방에 숙위케 하였다(박용운, 1987). 그럼으로써, 최 씨의 숙위기관은 문무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무인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문인들의 안식처가 마련되었으니, 서방의 설치는 학대받던 문인들을 포섭하는 정책적 배려였다고 판단된다. 문인들은 고사에 밝고 식견이 높아 정치의 자문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었다. 서방은 임유무가 살해되어 무신정권이 끝남과 때를 같이하여 또한 폐지되었다.

3. 가병과 도방의 관계

최 씨 무신정권의 도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난점이 사병조직의 존재형태이다. 가병, 마별초 등이 도방과의 관계에서 그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가병(家兵)이 말 그대로 최 씨 집안의 병사를 뜻한다면, 큰 범주에서 도방 역시 가병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우가 가병을 사열했을 당시, 도방과 마별초의 안마(按摩), 의복(衣服), 궁검(弓劍), 병갑(兵甲)이 심히 사치스럽고 아름다웠다고 해석하는 경우에 가병은 도방, 마별초 등을 포함하는 조직으로서, 가병과 도방이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조직시기를 살펴보면, 도방은 최충헌이 집권한 지 4년 8개월 만에 설치되었고, 가병이 조직된 시기는 기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방의 설치기록이 나타나는 시점(1200년)부터 16년 후(1216년)에 가병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둘째 구성원의 대상과 모집방법을 살펴보면, 도방의 구성원으로는 문무관리, 한량, 군졸 중에서 강력한 세력가들이 초치되었다. 이들 가운데 한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중앙관직을 지니거나 중앙군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병은 국인(國人)들 가운데서 은병(銀瓶)을 내걸고 공개모집을 실시하였다. 이는 많은 사병을

모집하려는 최 씨 가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셋째 구성원 및 조직의 성격이 어떠한지 알아보면, 도방은 중앙 조직과 관련된 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공적인 호위를 담당하고 있다. 가병은 그 구성원들이 중앙 조직과는 무관하며 전적으로 최 씨 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병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반드시 사병 조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전태인, 2005).

도방 조직 이전에 최충현이 정권쟁탈과정에서 동원했던 사병이 도방의 조직과 더불어 거기에 흡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도방이 설치된 이후에도 도방과는 다른 가노(家奴)들을 중심으로 한 사병조직이 존재했던 사실을 미루어 볼 때에 대부분은 가노와 함께 최 씨 사병의 핵심적인 존재로 남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김당택, 1983).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도방과 가병의 조직 구성원과 모집 방안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최 씨 집안은 공적인 신분을 지닌 도방 구성원들을 통해서 정당성과 명분을 얻는 동시에 공적, 사적 양면에서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었고, 활약의 폭이 넓은 도방을 사전의 위험을 감지하는 기구로 이용하였다. 도방은 최 씨 집안과 밀착되어서 정적의 감시, 정보의 수집, 신변 호위, 집안 숙위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도방 구성원과 연결된 자들을 궁, 중방, 자가, 거리 곳곳에 두어 각 집단의 동향을 살피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병은 이러한 도방으로부터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 세력을 제거하거나 반란군을 진압하였고, 위험이 가시화되었을 때에 최 씨 집안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도방은 최 씨 무인집정을 호위하는 호위부대이면서 동시에 최 씨 집안의 안위와 관련된 정보와 전략을 다루는 특수부대로, 가병은 최 씨 집안을 위해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기동부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결국 최 씨 집안은 도방을 거쳐 걸러진 정보로서 가병을 움직여 위험세력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정권의 안정을 꾀하였다(이경혜, 2001). 가병의 핵심역할은 적대 세력의 처단 및 위기 상황의 호위임무이며, 최 씨 가의 위험이 수반되면 가병이 동원되었다.

4. 별초군(別抄軍)의 성립과 그 성격

무신집권기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은 군사조직을 개편, 새롭게 정비했다는 점이다. 특히 그 가운데에는 사병조직이 그러하였다. 최우는 사적인 무력장치로서 최충현 때부터 만들어졌던 도방을 확대하여 내도방과 외도방을 조직하고, 거기에 마별초

를 증설하였다. 이와 같이 군사조직을 새롭게 조직화한 것으로서 별초군으로 지칭되는 마별초와 삼별초, 지방별초가 있다. 여기서 ‘별초(別抄)’는 선봉대, 유격대, 별동대 등을 특별히 뽑아 조직했다는 뜻으로, 국가가 대내외적으로 비상시국을 당했을 때 용감하고 충성심이 강한 자를 특별히 선발했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별초군은 기존의 병제가 유명무실화되는 무신집권기에 들어와 그 실체를 확연히 드러내기 시작한다. 즉 1173년(명종, 4년) 조위총의 난을 토벌하기 위한 결사대로서 전봉별초를 특별히 모집하고 최충헌을 별초도령으로 삼은 것이 그 예이다. 최충헌의 묘지명에 의하면, 그가 지휘하던 전봉별초가 조위총의 난(亂)이 평정된 이후에 해산되고 최충헌은 본위의 별장이 되었다. 따라서 이때에 전봉별초에는 전시에 임시적으로 조직된 별동대임을 알 수 있다. 고종 3년에는 거란이 잔류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군대가 동원되었을 때 적이 가까이 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3군에서 각기 별초 100인과 신기 40인씩을 파견하여 싸우게 한 기사가 발견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별초군은 점차 임시적인 편성이 아닌 상설부대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그 특징 내지는 조직을 표시하는 글자를 덧붙인 마별초, 야별초, 삼별초는 최우에 의하여 조직된 상설부대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윤곤, 2004).

1229년(고종, 16년) 10월의 기사에 마별초가 출현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미 창설되었음이 분명하다. 최우가 집권한 시기가 고종16년이었음을 감안할 때 6년에서 16년 사이에 창설된 것으로 짐작된다. 고종16년 이전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그 성립의 배경이 정방 및 서방과 비슷한 점이 있다.

마별초(馬別抄)는 기병으로 조직된 특수부대이고, 최 씨 정권의 사병으로 신변보호 및 의장대의 임무를 다하면서 최우 이후의 최항, 최의 때까지 존속되었으나, 최 씨 정권의 몰락과 더불어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이관배, 1988). 마별초와 도방의 조직상 관계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조금씩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마별초는 도방에 속한 특수부대였다고 주장하는 연구자가 있는가하면, 양자는 병행되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삼별초는 고종 때에 최우가 조직한 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로 분리 편성되고, 여기에 신의군(神義軍)이 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본래 야별초(夜別抄)는 밤에 방법순찰이 목적이었으나, 뒤에 몽골에 잡혀갔다가 도망해온 자들로 신의군이 구성된 후, 즉 삼별초가 조직된 이후에는 군사와 경찰 그리고 형옥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삼별초 가운데 신의군은 대몽항쟁과정에서 적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

쳐 나온 고려군들로 조직된 군대였기 때문에 몽고군에 대한 적개심이 극심했다.

삼별초의 설치목적은 최 씨 정권의 호위, 즉 정적의 제거와 농민, 천민의 봉기를 진압하고 몽고의 침략을 저지하려는 데에 있었다. 집권자들은 삼별초를 강화도에서 육지로 파견하여 농민폭군을 진압하고, 몽고군의 침략을 방어 및 격퇴시키기도 하였으며, 그들의 정권 유지에 삼별초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삼별초 중에서 집권자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정적 제거나, 혹은 쿠데타 같은 정권장악 행위 등이 이용된 지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그 대부분은 항상 대몽항쟁의 대열에 투입되어 있었다. 수도가 강화에 있을 때 집권자들은 국내의 반정부세력보다는 몽고의 침략에 더 큰 불안과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삼별초에게 쿠데타나 정적 암살과 같은 역할보다는 대몽항쟁에 더욱 힘쓰기를 요구했던 것이다(김창호, 2006). 이에 따라 삼별초는 고려인의 강한 저항정신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도방이 최 씨의 신변 호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데 대해서, 삼별초는 경찰, 전투 등의 공적인 임무를 띠었다. 6위가 담당해야 할 것과도 같은 임무를 맡은 삼별초라는 별개부대를 새로 조직해야 했던 것은 6위의 관군이 유명무실하게 된 증거이다. 한편, 삼별초가 국가의 재정에 의하여 유지되고, 공적인 임무를 맡았다고는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최 씨의 사병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Ⅲ. 연구 문제의 분석과 논의

1. 최충헌 도방의 개선과 발전 문제

첫 번째 연구 문제는 도방의 발생에 대하여 최초로 등장한 것은 경대승에게서 찾을 수 있으나 이의 실질적 활용과 제도적 발전은 최충헌 때부터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최충헌은 아우의 도전과 형제간에 싸움을 벌였던 비극을 체험한 후 권력은 형제끼리도 나눌 수 없는 것임을 실감하였고 좀 더 항구적인 권력유지의 수단으로서의 도방으로 개선하고 자신의 신변안전과 권력 유지의 기관으로 삼아 이를 확대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도방이 조직된 것은 바로 이 무렵인 1200년이다. 최충헌은 자신의 문객집단에 대해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양적인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조직 방법

으로 국가 상비군을 자신의 문객집단으로 더 많이 끌어들이어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즉 국가 상비군 안에서 문객집단의 외곽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었다. 1206년 3월의 문객 수는 무려 3천명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다. 이 3천명의 문객집단이 바로 도방의 구성원이나 전체수를 3천명으로 계산하면 매일 5백 명의 문객들이 번갈아가며 최충현의 사저를 지킨 셈이다. 도방의 구성을 6번으로 나누는 것은 최충현의 사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인원과 경비를 가늠하여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인원이 5백 명이었기에 전체 3천명을 6개조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최충현이 외출할 경우에는 모두 호위하도록 했는데 그 위상은 마치 전투에 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6번으로 조직된 문객집단이나 혹은 그 지휘부를 도방이라고 한 것이다. 최충현은 도방으로써 국가 상비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도방 조직을 볼 때 최충현이야말로 장군으로서 문인의 지혜까지 겸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보다는 항구적인 안전을 도모한 미래지향적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몽고 침입 이후 도방이 어떻게 활약하였는가의 문제와 함께 해체의 원인에 대한 것이다. 최우가 더욱 발전시킨 도방은 후손들의 자손들의 능력이 부족하고 몽고족의 침입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존속되었고 능력이 없는 어린 자손이 주인으로 앉았을 때 민심이 기울어지자 최우의 유언에 따라 능력자인 김준이 그 자리에 앉아 그의 부자가 유지했으나 몽고의 간섭과 압력에 의해 도방이 해체되고 정권은 몽고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도방 그 자체의 약점으로 인해 해체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집권자인 김준·임연 등에 의해 다시 계승되어 신변호위의 기능을 발휘하였으나, 이들이 외세에 의해 제거되면서 정중부 이래의 무인정권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다.

세 번째, 최 씨 무신정권의 도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난점이 사병조직의 존재형태라는 점이다. 가병, 마별초 등이 도방과의 관계에서 그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가병이 말 그대로 최 씨 집안의 병사를 뜻한다면, 큰 범주에서 도방 역시 가병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우가 가병을 사열했을 당시, 도방과 마별초의 안마, 의복, 궁검, 병갑이 심히 사치스럽고 아름다웠다고 해석하는 경우에 가병은 도방, 마별초 등을 포함하는 조직으로서, 가병과 도방이 동일한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견은 대체로 학자들 간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 관계에 대한 언급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를 종합하여 말한다면 도방은

큰 테두리이고 그 세부적 임무는 본래부터 있었던 가병, 후에 창설된 별초군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분류가 아닌가 한다. 이를 임무별로 말한다면 가병은 집안 일을 도맡은 사람들이고 도방은 대외적 업무와 전체를 포괄하는 호위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별초군은 몽고의 영향으로 조금씩 다르게 편성된 특수부대였을 것이다.

도방이 조직된 이후에도 도방과는 다른 가노들을 중심으로 한 사병조직이 존재했던 사실을 미루어 보아 대부분의 가병은 가노와 함께 최 씨 사병의 핵심적인 존재로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도방과 가병의 조직 구성원과 모집 방안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최우의 호위 조직 창설과 확장의 문제

무신집권기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은 군사조직을 개편, 새롭게 정비했다는 점이다. 특히 그 가운데에는 사병조직도 포함되어 있는데, 최우는 사적인 무력장치로서 최충헌 때부터 존재했던 도방을 확대하여 내도방과 외도방을 분리해서 조직하고, 마별초를 증설하였다. 이와 같이 군사조직을 새롭게 개편한 조직체로서 별초군으로 지칭되는 마별초와 삼별초, 지방별초가 있다. 여기서 별초는 선봉대, 유격대, 별동대 등을 특별히 뽑아 조직했다는 뜻으로, 국가가 대내외적으로 비상시국을 당했을 때 용감하고 충성심이 강한 자를 특별히 선발했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별초군은 기존의 병제가 유명무실화되는 무신집권기에 들어서서 그 실체를 확연히 드러내기 시작한다. 최우가 몽고와의 긴장관계가 긴박해지자 그의 집권체제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서방처럼 마별초를 몽고의 제도를 참작하여 창립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마별초의 역할은 권신들이 신변호위를 위하여 날쌔고 용감한 자들을 모집, 양성하였는데, 그 이름을 신의군, 마별초, 야별초라고 하였으니 이른바 삼별초이다. 그들의 녹봉이 국가에서 지급되었던 만큼 단순한 사병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김윤근(2003)의 견해에 동의한다.

삼별초의 설치목적에 대한 논의도 최 씨 정권의 호위, 즉 정적의 제거와 농민, 천민의 봉기를 진압하고 몽고의 침략을 저지하려는 데에 있어서 이들은 집권자들에 의한 강화도에서 육지로 파견되어 농민반란군을 진압하고, 몽고군의 침략을 방어 및 격퇴하게 하였으며, 집권자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 삼별초를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삼별초 중에서 집권자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반대

세력 제거나, 혹은 쿠데타 같은 정권장악 행위 등이 이용된 자는 소수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폄하는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 대부분은 거의 항상 대몽항쟁의 대열에 투입되어 있었다. 수도가 강화에 있을 때 집권자들은 국내의 반정부세력보다는 몽고의 침략에 더 큰 불안과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삼별초에게 쿠데타나 정적 암살과 같은 역할보다는 대몽항쟁에 더욱 힘쓰기를 요구하였다는 김창호(2006)의 견해에 동의할 수 있다.

3. 무신 집권기 호위제도와 현대경호경비와의 관련 문제

무신 집권시대의 호위제도는 현대경호경비의 원천이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공경호와 민간경호의 관계는 곽윤길(2010)에서 그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대로 공공의 성격을 띤 경호경비란 경호의 주체가 국가기관이며, 그 대상자도 국가원수를 비롯한 요인이나 외빈으로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거하는 것이지만, 사설민간경호는 주체가 영리기업이나 민간단체로서 고객의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것으로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다 같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점이다. 고려 무신집권시의 도방이나 기타 호위기관은 사설경호경비에서 출발했으나 차츰 공공성을 띠어가며 국가의 위기상황에 미리 방어하고 대처했다는 점으로 공공성을 띠었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현대경호경비와의 연관성을 찾는 이러한 과제는 시대가 다르고 활동의 본질이 다른데 어떻게 관련사항을 찾는가 하는 난점에 부딪칠 수도 있다. 그러나 고려 중기의 위기와 현대의 테러에 의한 위험 사태를 비교하여 동질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도방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인 제도이며 이를 발전시킨 최충헌 이하 그의 자손과 타성을 지녔던 김준과 임연에 이르기까지의 탁월한 리더십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현대의 경호경비 제도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의 문제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위기는 언제나 존재하며 문화가 발달할수록 어려운 것임을 깨달을 때, 앞에서 지적한 대로 그들의 특이한 리더십의 특성은 미래지향적 사고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사고에 관련하여 현대의 민간경비 관련법의 개선 문제를 사례로 들어본다. 이영오(2008)의 “민간경비 구성요인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거론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한 몇 개의 사항을 보면 첫째, 신고사항의 신고처 문제, 둘째, 교육에 관한 문제, 셋째, 경비지도사 시험 및 교육문제, 넷째, 특수 경비원의

쟁의금지 문제, 다섯째, 경비원 배치의 문제로 나타나 있다. 허가 기관과 신고처를 설정해야 한다는 난점이나 교육의 문제 등 개선해야 할 점들이 증가하는 것이 발전하는 사회의 문제로 등장하며 더욱 투철한 정신과 지혜로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면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문제점이 많은데 고대사회에서 많은 문객을 거느리고 다스렸다는 점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고대사회에서 왕이나 관리와 접촉하는 민간인이라 그리 흔치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업종의 신고는 특권층에서 도맡아 처리했을 뿐이기에 백성의 소원이 무엇인지 구중궁궐의 왕이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였을 것이다. 최충헌의 문객이 3000명이었다는 것은 그의 실질적 리더십을 짐작해 볼 만하다. 이러한 리더십 앞에서는 왕권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충헌은 국왕을 대신할 만한 지도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할 만하다. 도방에는 그만큼 많은 인원이 필요했고 그의 세력은 날로 성장했을 것이다. 직무교육상의 문제해결이다. 경대승의 도방에서는 도방원이 도둑질하는 사례도 발견되어 관민의 지탄을 받은 일이 있었지만 최충헌의 도방원에 대한 비난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그의 도방은 아들 최우에 이르러 더욱 발전했으며 실질적 국가 수호의 경지에 이르렀다.

현대의 경호경비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테러의 위협에 대처하는 문제이다.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계승해야 할 정신과 용기와 지성이 필요하다면 무신집권시의 혼란과 위기의 상황을 대처해 나갔던 도방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본받을 만하다. 여기에 후손들의 긍지와 지혜가 더욱 발전 향상할 것으로 확신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기존의 자료를 상고하면서 고려 무신집권기의 호위제도가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 및 그 성격에 대하여 선대의 연구실적을 존중하며 고찰해 보았다. 연구의 범위는 국왕의 근접 호위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경비의 성격을 가진 궁성수비에 이르기까지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호위와 호종을 포함하였다. 경호대상자에 있어서도 당시에 상징적인 존재였던 국왕만이 아닌 실질적 집권자, 즉 이의방·정중부·경대승, 최충헌과 그의 자손대의 집권자들의 사병을 포함하여 이를 내관, 중방, 도방,

서방, 가병, 별초군 등의 발생 경위와 성격, 역할, 후세의 평가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했다. 경호대상자의 범위를 넓힘은 물론 국가의 안전과 국가 질서의 확립, 재산과 양민의 보호까지 포함하는 오늘날의 경호와 같은 작용이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고려시대는 왕정국가로서 엄밀한 의미의 호위는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군사제도에 편입된 국왕과 왕실에 대한 공적 경호가 핵심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으나, 무신쿠테타 이후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문신들을 억압하고, 왕권을 무력화시키고, 정권의 획득과 연장을 도모하였다.

무신집권의 3거두였던 정중부·이의방·이교 등의 과욕적 권력 쟁취방법은 본받지 말아야 할 교훈이며 경대승이 젊어서 금군 지휘관들과 합세하여 그 일파를 제거한 용기는 찬양할 만한 의거로 기억하며 경대승은 문신들의 호감을 받고 왕의 신임을 얻어 집권자의 지위에 올랐으나 위기를 느끼어 백 수십 인의 결사대를 문하에 두어 자신의 호위를 맡겨 도방이 발생되었다는 점도 획기적인 일이었다. 경대승이 병사한 후에 도방이 폐지되고, 최충현 형제의 집권은 그 이전의 무인집권과 구별될 정도로 왕정질서를 앞세웠고, 문인들과도 소통함으로써 뚜렷한 명분을 제시했다. 최충현이 정권을 잡자, 좌우의 반감을 사는 자가 많으므로 자신의 신변보호 및 집권체제 강화를 위해 경대승의 도방을 계승했다. 경대승의 도방은 하나의 선례가 되었으며, 최충현은 도방의 유용한 점들을 취하고 폐단 등은 시정하여 자신의 도방에 적용하였는데, 그 규모면에서도 훨씬 크고, 좀 더 체계화된 조직이 되었다.

최충현은 문무관·한량·군졸을 막론하고 체력이 강한 사람을 소집해서 6번(番)으로 나누어 매일 교대로 그의 집을 수직(守直)하게 하고, 그가 출입할 때는 6번 모두가 연합하여 호위하였기 때문에 6번 도방이라고 칭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의 아이디어나 리더십이 탁월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최우의 집권 당시에 6번도방은 내외도방(内外都房)으로 확대 편성, 강화되었고, 그 후에 도방은 더욱 발전하여 도방 36번 제도가 확립되었다. 도방이 현대적 의미의 경호에 있어서 정보 수집과 선발 경호의 활동을 하는 것처럼 가병은 사후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호위에 만전을 기하였다. 도방이 이처럼 계승되고 발전한 경우는 역사상 모범이 된다. 최 씨 정권의 사적 친위조직으로서 도방과 가병 이외에 마별초를 창설하였다는 것은 시대의 추이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제도의 특성을 잘 말해주는 사항이다. 마지막 삼별초의 활동은 외적의 침입에 끝까지 항거한 점으로 보아 무신집권기 최후의 국토방위에 대한 강한 정신력을 발휘한 사례가 되고 있다.

무신집권 당시 무신들의 호위 조직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경호와 민간경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현대의 민간경호는 경호대상이 민간인이며, 경호담당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성이지만, 도방이나 가병, 그리고 별초군들의 경호대상은 사적인 신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가병이나 도방 구성원들이 영리를 추구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려 무신집권기의 경호조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최 씨 정권의 호위 기관들은 사회적 명분을 얻을 수 있도록 점차 확장, 개선되었으며 그 임무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공적인 목적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려시대 무신들의 호위제도는 현대경호경비의 뿌리가 됨을 알 수 있다. 무신집권 이후 도방이나 별초군의 존재가 표면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그것은 그 시대의 호위제도가 잘못되었다기보다 몽고의 침입이라는 외세에 의해 해체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도방이나 별초군 등의 사적 경호경비의 출발이 고려 무신집권에서부터 제도화되었다는 역사적 의의와 현대경호경비의 뿌리로서의 후손들에게 분이 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정규만(2004). **경대승의 집권과 그 성격**.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윤길(2010). 고려 무신정권 시기 호위조직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7(2). 357-375.
- 국사편찬위원회(2003). **한국사(18)**. 김당택, 무신집권기의 성립과 변천. 서울: 탐구당, 17-124.
- 국사편찬위원회(1973). **한국사(7)**. 민병하, 최 씨 정권의 지배기구. 서울: 탐구당, 63-172.
- 김당택(1987). **고려 무인정권 연구**, 최 씨 정권과 그 군사적 기반. 서울: 새문사.
- 김두현(2005). **경호학개론**. 서울: 경호출판사.
- 김두현(1995). **경호학개론(초판)**. 서울: 경호출판사.
- 김우준(2012). 고려시대 민간경비제도 고찰, **한국행정학회**, 1-12.
- 김윤권(2004). **삼별초정부의 대몽항전과 국내외 정세변화**, 한국중세사연구, 17. 한국중세사학회, 61-102.
- 김창호, 고은정, 박영만, 이선제, 이영선, 이종원(2008). 고려시대 왕실경호조직과 무신경호조직 비교를 통한 경비이론도출에 관한 시론적 고찰. **경기대학교논문집**, 52, 129-154.
- 김창호(2006). **한국경호발달사**. 서울: 백산출판사.
- 박장규(2010). **한국경호사**. 서울: 진영사.
- 박용운(1987). **고려시대사(하)**. 서울: 일지사.
- 이경혜(2001). **고려 최 씨 무인정권기의 도방**.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관배(1988). 고려 무신집권기의 사병조직.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백(2007). **한국사 신문**. 서울: 일조각.
- 이민형(2009). 고려시대 호위조직의 무예활동에 관한 사적고찰. **대한무도학회**, 11(2), 357-368.
- 이민형, 이강문, 송상욱(2007). 고려 무신집권기 경호조직에 관한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8(5), 85-94.
- 이민형, 이강문, 송상욱, 김진환(2008). **한국경호사강의**. 서울: 진영사.
- 이선기(2012). 대구포 공연장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민간경비업체의 역할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33. 165-195.
- 이성진, 김의영, 이종환(2007). 고려시대 왕실호위제도의 사적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 413-429.
- 이승환(2003). **고려 무인 이야기(2)**. -최 씨 왕조(상)-. 서울: 푸른역사.
- 이영오(2008). 민간경비 구성요인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6,

265-282.

장철원(2003). 한국 경호제도 변천사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경숙(1997). 고려 최 씨 집권기의 도방.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태인(2005). 고려시대 무예활동을 통한 친위조직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진단학회(1978). 한국사(중세편). 서울: 을유문화사.

홍승기(1995). 고려 무인정권 연구, -고려 최 씨 무인정권과 최 씨 가의 가노-. 서강대학교 출판부, 171-203.

【Abstract】

History of Guard System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Rule in the Goryeo Dynasty

Lee, Sung-Jin
Cho, Sung-Jin

In the early days of the Goryeo Dynasty, the royal guard was comprised of the central regular army in the 2-gun-6-wi system, and Nasungeomgun was in charge of the security inside the palace. However, the military system became disorganized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rule and the royal guard had to rely on military subjects. The military officials suppressed the civil ministers centering on Jungbang, the guarding organization close to the King to incapacitate the royal authority and control the state affairs. When the rule of the three leaders of the military rule became short-lived and Dae-seung Gyeong is raised to the ruler, he organized a do-or-die squad comprised of a hundred and more people for his personal safety, and this became the first dobang. Dobang was disassembled after Dae-seung Gyeong died of disease, but under the rule of Chung-heon Choe, Dae-seung Gyeong's dobang was revived and reinforced into 'Yukbeon Dobang' to provide the ruler with personal protection and intensify the ruling system, and it was quite a large organization with more refined system.

Yukbeon Dobang was expanded and reinforced into Naeodobang under the rule of Woo Choe, the son of Chung-heon Choe, and it was enhanced even more into Dobang Samsipyukbeon System under the rule of the grandson, Hang Choe. Dobang can be considered as the guard organization in modern sense, and it collected information and surveyed the area where guarding is required and house troops that belonged to Naedobang eliminated the risks that may follow afterwards to make assurance doubly sure for guarding.

The Choe's regime established Mabyeolcho as a private guard organization

in addition to dobang, and this formed the cavalry and infantry units with dobang. Yabyeolcho organized by Woo Choe in the reign of King Gojong was divided into Joabyeolcho and Ubyeolcho, and later Sineuigun was integrated with them to form Sambyeolcho. Originally, Yabyeolcho was established under the rule of Woo Choe to prevent crime in the evening, but after Sineuigun was organized with the ones who were captured by Mongolian army but escaped, in other words when Sambyeolcho was organized, the organization displayed much broader influence by covering military and police affairs as well as punishment and imprisonment.

The guarding organization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Rule in the Goryeo Dynasty did not have strict distinction between official guard and personal guard. The private guard in modern days which is the equivalent of personal guard is characterized by its commerciality, however, house troops and the members of dobang did not seem to pursued profit. The guard organization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rule started from dobang which was organized for personal safety but gradually developed publicnes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civil ministers and expansion, and later it played the pivotal role for social security serving official purpose up to the level where the distinction between official and private activities was blurred during the period of Sambyeolcho.

Key words : Guard system, Dobang, Mabyeolcho, Sambyeolcho,
Private security